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소 리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강경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소 리

인 준 서

이소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H 사회복지시설의 회원 중 6개월 이상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된 총 8명이 선정되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경험과 관련된 음악활용에 대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수집하였고,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47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들은 페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나타났고, 과정 분석을 통해 필요인식 단계, 경험획득단계, 자기주도 단계, 향유 단계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은 사회·정서적 이슈에 의해서 음악사용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정신재활 서비스로서 음악치료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나타났다. 이 결과,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발전적인 음악적 삶을 향유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과정과 그 이후에 가지는 경험을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음악치료가 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사회복지시설	6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6
2) 사회복지시설의 재활프로그램	7
2. 정신장애인과 음악	9
1)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9
2) 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11
3) 음악치료에서의 음악적 경험	13
4) 일상에서의 음악	14
III. 연구방법	16
1. 근거이론	16
2. 연구절차	17
1) 연구 참여자 선정	17
2) 연구자	19
3) 자료수집	19

4) 윤리적 고려	20
5) 자료 분석방법	21
IV. 연구결과	22
1. 연구결과	22
1) 개방코딩 결과	22
2) 축코딩 결과	50
3) 선택코딩 결과	60
V. 결론 및 제언	65
1. 결론	65
2. 논의 및 제언	6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
<표2> 개념의 범주화	22
<표3> ‘긍정적 정서 고취’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25
<표4> ‘부정적인 감정 전환’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27
<표5> ‘스트레스상황 회피’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28
<표6> ‘불편한 상황의 해소’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30
<표7> ‘음악치료의 경험’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36
<표8>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38
<표9>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40
<표10>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41
<표11>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44
<표12>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46
<표13>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49

그림 목 차

<그림1>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55
<그림2>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 과정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도시화, 정보화 및 기술화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인은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되고 있고 정신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최미경, 200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1명(10.2%)이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2006년 8.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9%가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평생 유병률)도 2006년 8명 중 1명(12.6%)에서 2011년에는 7명 중 1명(14.4%)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이하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복귀시설은 재활에 초점을 두어 주간보호와 재활, 주거환경 및 사회적지지 등을 제공한다(김문근, 2003). 또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거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센터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와 적응에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해 나가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나, 2011). 이러한 사회복귀시설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2010)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은 2001년 75개소에서 2010년에는 230개소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사회복귀시설의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퇴원한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상담과 교육, 입원 및 외래진료, 주간재활, 가족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정신질환자의 궁극적인 치료목표는 정신병리 증상의 호전과 더불어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므로, 그들의 심리적·사회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심리·교육적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적인 중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훈진, 원호택,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정신과 병원이나 관련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을 돕기 위한 다분야의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문지영, 2012). 정신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장애의 경감과 예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잠재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원조하고, 사회적 적응생활의 회복을 돕는 과정으로서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김계원 외, 2011). 이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의 재활훈련 외에 미술, 음악, 연극, 사이코드라마, 원예요법 등 예술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즉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

트레스를 조절하는 기술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김혜선, 2012). 즉, 정신질환자들의 고립되고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리며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는 심리·교육적 치료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문지영, 2012). Liberman(1995)은 만성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사회적 치료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독서, 그림, 음악, 댄스, 스포츠 등 여가활용을 통한 치료적인 환경조성의 집단정신치료를 강조하였다(유소연, 2009). 이러한 통합적인 치료과정 속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음악적 접근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전환과 정서조절을 돕고 지적자극을 주어 자기 표현을 촉진시킴으로써 재사회화를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음악치료 활동은 감정발산작용(catharsis), 자기조직(self-organ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 시간-질서(time-ordering), 기분안정(mood setting), 자기통제, 긍정적 경험,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촉진, 타인과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Goodman, 1981).

국내에서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치료기법이나 활동 유형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증상에 대한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권명진, 2008; 홍혜영 외, 2011; 이미경, 2011), 정신장애인이거나 관련 전문가가 인식하는 음악 치료장면에 대한 연구들(이드보라 외, 2008; 문지영, 2012), 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강민정, 2002; 박지희, 2003)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음악치료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온 양적연구들은 음악치료가 가지는 정신장애인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나, 음악치료 경험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신장애인들의 시각과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들(양은아, 2006; 이경숙, 2009; 박지은, 2009)이 실시되어 기존의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 음악치료 경험을 보다 깊이 있고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대상이 아동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질적연구들(노춘희, 2000; 권혜진 외, 2003; 박주홍, 2009)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음악치료를 경험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적 음악생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정신보건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의도된 효과성을 측정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음악치료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과정과 그 이후에 갖게 되는 경험을 이용자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일상적 음악 생활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향후 음악치료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찾는 노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적인 증가에 따라 재활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일상적 음악에의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경험이 주는 발전과정과 영향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생활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로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경험한 이용자들이 일상에 돌아와 겪게 되는 음악의 사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재활 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음악적 경험을 하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입장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음악치료

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지난 음악치료 경험을 반추하여 회고하게 하고, 그들의 특정 음악치료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와 과정, 그로부터 연관된 일상의 음악적 삶에 관해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현장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개념을 단계별로 코딩하고 중심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틀을 도출해 낸다는 점과 대상자의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에 관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음악을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음악치료 경험은 클라이언트의 실질적인 일상적 욕구에 대한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재활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이용경험을 뜻하며,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음악적 전략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정신분열병 등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러나 1995년 12월 말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12). 이것은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여건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장기적으로 입원시키기 보다는 지역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치료를 받게 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제 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등이 신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퇴원한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 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상담과 교육, 입원 및 외래진료, 주간재활, 가족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촉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정신보건법 제15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작업훈련 등의 재활훈련 외에 미술, 음악, 연극, 사이코드라마 등 예술치료를 실시

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사회복귀시설은 재활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생활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설로,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로 나뉜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로 나뉜다(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귀시설의 모든 운영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하며, 정신장애인의 관리 인원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운영된다. 각 기관의 비전에 따라 사업형태는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주간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을 진행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주 5일 간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재활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야 하고, 대상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요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같이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이영, 2004).

2) 사회복귀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재활이란 정신과 신체장애의 구별 없이 환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그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알맞게 가능한 한 만족된 생활을 하고 최대의 기능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재활훈련과 적응방법을 말한다(Cambell, 1989).

정신재활은 1940년대 미국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탈기관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와 함께 재활프로그램을 활용

하도록 하면서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병원과 시설에서도 제도적으로 재활서비스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박상규, 2006). 이전까지는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정신병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즉 치료에만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이차적인 개인의 생활능력 저하, 사회 부적응 문제 등 증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던 것이다(새미래정신재활연구소, 1999). 최근에는 약물치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여 정신장애의 증상에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서적 둔마, 대인관계 어려움, 의욕상실,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에 적응하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정신사회적 재활치료와 생물학적 치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복늬 외, 1996).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약물치료, 개인정신치료, 집단정신치료와 사회기술훈련, 약물 및 증상교육, 가족교육, 자조모임, 직업재활 등 여러 가지 치료적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도복늬 외, 2001). 우리나라 정신보건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입소, 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도록 생활훈련, 작업훈련,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9). 여기서 생활훈련은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훈련, 약물관리훈련,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이 포함된다. 작업훈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이용자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재활훈련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는 일상생활기술훈련,

인지재활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문제해결교육, 대인관계교육, 약물관리 교육, 스트레스관리 등이 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는 작업 기능 사정 및 평가, 취업 전·후 교육, 보호 작업장, 일시취업, 지지취업, 취업자 자조 모임 등이 있다. 기타 서비스로는 상담, 사례관리, 가족교육, 예술치료, 각종교육 및 홍보, 기획행사 등 개별 시설마다 특성화된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정신장애인과 음악

1)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단순한 병리학적 용어로 규정되기 힘들다(문인숙, 양옥경, 1991). 일반적으로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정신병(psychosis)과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Bruno, 1989). 정신질환은 정신병적(psychotic)인 것과 신경증적(neurotic)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동시에 병적 증상의 완화(relief of symptoms)와 같은 질병의 개념을 강조한 용어인 반면, 정신장애는 증상의 치료적 입장은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해 파손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념에 비중을 두어 전인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이병윤, 1990).

장애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의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라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의료·진단

적 정의로는 ‘유병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되고 재입원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되며 일상생활에서 역할수행을 하는데 장애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주요 정동장애, 일부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1994).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정신장애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저하 상태를 말한다(양옥경, 1993).

정신장애인의 특성은 만성적 성격, 보호적 성격, 질병의 이질성, 스트레스의 취약성, 극도의 의존성, 대처능력 결핍, 치료의 난치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한영란, 1998). 첫째,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만성적 성격이고 보호적 성격을 가지며 또는 자아가능이 붕괴되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및 자기관리를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둘째, 질병의 이질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으로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즉, 같은 병을 앓고 있더라도 개인에 따라 증상, 사회·직업적 경과와 치료결과가 상당히 다르며, 동일한 사람 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만성정신장애인은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혀도 정신병리 현상을 보인다. 셋째, 극도의 의존성이다. 만성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을 무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이나 정부 또는 시설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지원이 중단되면 심한 정신병리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넷째, 대처능력의 결핍, 질환의 난치성과 경제적 부담이다. 사고, 판단, 문제해결과 관련된 인지기능에 있어서의 장애, 부적절한 감정 표현, 자아가능의 약화, 직업기능의 상실, 비약한 경제능력,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은 고립된 행동을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수

용하고 유지하는 등 소극적이거나 아무런 대처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면,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통합적인 사회복지 대책이 요구된다.

2) 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정신과에서의 음악치료는 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정신재활치료의 한 영역이다(문지영, 2009). 정신 재활 음악치료는 활동치료적인 방법, 음악심리치료를 통해 환자의 통찰력을 발달시켜 주는 방법, 재활과 교육에 목적을 둔 방법(최병철, 2007) 등 환자의 기능상태와 활동능력에 따라 그 치료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heeler(1983)가 제안한 세 단계 심리 치료적 적용이론을 통해 그 치료단계와 그에 따른 치료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원적이며 활동중심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단계로, 행동조절, 사회성훈련, 현실인식, 타인과의 관계 증진, 집중력 향상, 지속력 증가, 취미활동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찰을 통한 재교육을 목표로 접근하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심층적으로 음악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행동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감정과 이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기 내면세계의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세 단계 중 가장 심층적 단계로서, 성격의 재구성을 목표로 접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감정에서 보다 깊이 과거의 경험을 다루게 되며, 현재 감정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이슈들을 다루면서 현재의 문제들이 이전의 미해결된 문제들과 연관되어 내재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신 재활 음악치료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기능수준에 따라 사용되는 기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재활 음악치료는 환자에 따라 음악치료적 자료나 기법이 달라지고 환자가 가진 문제에 따라 음악에 대한 경험 정도와 형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정현주, 2005). 즉흥연주는 대상자로 하여금 감정을 발산하게 하고, 개인의 행동을 반영, 지지, 변화, 재지지함으로써 구체화시키고 음악적인 형태로 해석해준다(Bruscia, 1998). 작사 및 개사는 경험과 느낌을 회상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게 하는 지지적 도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들을 치료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노래는 가사를 통한 통찰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내재된 심리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정현주, 2005). 또한 음악감상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형태로서 위안과 지지를 제공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김수지 외, 2002).

Thaut(1989)는 음악치료 활동이 정신과 환자들의 긴장이완, 정서, 사고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Unkefer(1990)는 즉흥적 음악치료활동이 사회적 위축과 정서적 무기력을 보이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에게 개인교류, 상호관계능력의 증진과 정신병리적 행동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숙(1999)은 기악활동과 노래를 통한 활동 등의 음악치료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다양한 감각적 자극으로 통로를 열어주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므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사회적응적인 행동의 변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권명진(2008)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반

응을 유발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반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홍혜영, 정광조, 최애나(2011)는 음악치료활동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이해,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표현을 하게하며,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3) 음악치료에서의 음악적 경험

Tillman(2000)은 음악적 경험이 인간본성의 물질(materials), 표현(expression), 구조(construction), 가치(value), 영(spirituality)적인 측면들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음악적 경험에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사실적 또는 물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경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 구조나 완성에 대한 경험,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 존재적·영적 측면의 경험 등이 모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음악적 경험이 단순히 음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연결됨으로써 음악 외적 변화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악치료는 이러한 음악 외적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치료에서의 음악에 대하여 Bruscia(1998)는 치료의 객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치료에서의 음악(music in therapy)’,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치료로서의 음악(music as therapy)’으로 구분한다(정현주 외, 2010). 첫째, ‘치료에서의 음악’은 내담자가 음악을 통해 음악 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Bruscia, 1998). 다시 말해서, 음악치료의 초점이 대상자와 치료사 간의 개인적 관계 또는 음악 외적 방법에서의 경

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인지적, 환경적 요인 등 음악 외적 요인에 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학습과 같은 인지적 활동, 치료적 환경, 치료사 또는 동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타인과의 의사소통, 자기표현의 경험 등이 포함된다. Gaston(1968)은 타인과 공유하는 음악이 친밀함을 유도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개인에게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최병철, 2007). 둘째, ‘치료로서의 음악’은 내담자에게 음악적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Bruscia, 1998). Kenny(1987)는 음악치료에서의 중요한 음악적 경험으로서 ‘심미적 영역(aesthetic space)’을 제시했다. 음악의 심미적 경험은 인간이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통해 음악이 표현하고 있는 심미적 특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삶의 순간마다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하게 하여 삶을 풍성하게 한다(백미현, 2011).

4) 일상에서의 음악

음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이동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의 시공간적 구획들의 곳곳에 자연스럽게 투입해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쉽게 감정적, 정서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형식이다(김기수, 2009). 이와 같이 음악은 다른 문화 매체에 비해 ‘일상성’이 강하고, 그것이 수용되는 맥락에서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과 연결된다(김창남, 1995).

이와 같은 음악의 일상성에 대해 민경훈(2011)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생활 음악’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생활 음악(Lebensmusik)이란 음악 활동을 일상생활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생활 음악의 주 목적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한 원만한 인격과 함께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민경훈, 2001). 이처럼 음악생활은 음악과 함께하는 인간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공적인 형태의 음악문화 생활을 의미하는데, 사회계층의 환경적 요인, 지역적인 특성, 시대적인 변화, 개인의 취미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함희주, 1991).

김수현(2004)은 생활 음악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친숙하고 익숙하며 이해하기 쉬운 음악이라고 정의하며, 음악과 같은 예술 경험은 단순한 느낌이나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는 사람의 환경, 건강, 연령, 성별, 성격 등 서로 다른 배경에 따라 수만 가지의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음악의 종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기능, 용도, 장소, 시간, 수단, 결합, 전달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박화일(2009)은 생활 음악에 대해, 음악 전문가를 위한 음악도 교육을 위한 음악도 아닌, 모든 생활인들이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만족, 혹은 기쁨 등 스스로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삶속에서 즐기는 음악이라고 하며, 자유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근거이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음악치료를 경험하고 일상에 돌아와 음악을 활용하기까지의 경험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가 음악과 맺고 있는 관계,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의 한 형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발전시키는 연구방법이다(Stern, 1980). 이를 위해 연구자는 존재하는 현상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 이론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유도된 이론은 현실영역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6).

또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사회학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분석 절차를 제공하는 방법론으로서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Amir(1992)가 근거 이론을 적용하여 음악치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에 대해 밝힌 바 있다(권은진, 2011 재인용).

근거이론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현상을 추상적이고 분석적 도식으로 이론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취하며, 현상에 반응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면접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여, 범주를 발전시키고 연결 지어 이론적인 가설을 진술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creswell, 1998).

특히, 근거이론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나 기존 이론은 있지만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사용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음악치료를 바탕으로 한 일상에서의 음악 활용 과정과 그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H사회복지시설의 회원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지 5년 이상 된 이용자 중 음악치료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길게는 2년에서 짧게는 6개월 정도 정신 재활을 위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들로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취지에 동의하며 연구자와 심층면접이 가능한 자를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정신질환이 발병한지 5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6개월 이상의 음악치료 참여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및 심리·사회 재활치료를 경험한 이용자 8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3명, 남성 5명이고, 나이는 최소 28세에서 최고 50세로 평균 39.7세였으며, 진단명은 모두 정신분열병이었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나이	성별	음악치료 참여기간	H사회복지시설 이용기간	학력	병력	결혼여부
A	40	여	6개월	6개월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B	46	여	6개월	6개월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C	40	남	1년6개월	2년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D	46	여	1년6개월	1년6개월	대중퇴	정신분열병	기혼
E	28	남	6개월	6개월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F	34	남	2년	2년6개월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G	35	남	2년	2년	고졸	정신분열병	미혼
H	50	남	2년	2년	고졸	정신분열병 /조울증	미혼

2) 연구자

근거이론 연구자는 중립적이고 초연한 태도로 보다 더 깊이 연구 참여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도록 노력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특징과 구성과정에 대해 면밀히 탐색해야 한다 (Chenitz & Swanson, 1986).

본 연구자는 약 2년 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자와 음악치료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집단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어 연구 참여자가 주로 경험하게 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환경에 매우 편안하고 익숙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안함과 익숙함이 연구자의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관리자 및 치료자로서의 시각을 버리고 근거이론 연구자의 시각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듣고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과정으로 석사과정에서 <음악치료 연구법>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및 근거이론 연구 방법과 관련된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론적 방법을 습득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음악치료경험과 일상의 음악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녹음하여 이를 필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Strauss와 Corbin(2001)이 활용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 전 설명을 들었다. 또한 참여 동의서를 읽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심층면접이 녹음될 것이고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가 종결된 후 폐기될 것이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함과 동시에 동의서에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H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음악치료 경험과 관련된 음악활용과 음악경험에 대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의 반구조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동의를 받고 모두 녹음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직후에 직접 녹음자료를 필사하였으며 수차례 확인과정을 거쳤다.

4)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는 어떤 연구에서나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질적연구는 특히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귀분 외, 2005).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참여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기호화하여 표기하고 연구 자료는 일정한 기간 후 폐기할 것임을 명시한 연구 참여동의서에 동의를 구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2001)이 활용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수행되었다.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며,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으로 축코딩은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방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가 다시 조합되는 절차로, 한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다른 하위범주들을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련화시키는 과정으로, 연구의 핵심 범주를 완성시키고 전체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형성한다.

IV. 연구 결과

1.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결과

연구 참여자 8명의 인터뷰 자료를 상세하게 읽어가며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47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2>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기쁠 때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더 즐거워짐	긍정적인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 싶음	긍정적 정서 고취	
걱정을 자주 느끼게 됨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 같은 고민이 많아짐 가끔 불안감을 느낌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바꾸고 싶음	부정적 감정 전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세상과의 이질감을 느낌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거나 해소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음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함	스트레스상황 회피	인과적 조건
집에 들어가면 적막하고 무료함 일할 때 지루함 책 읽을 때 지루함	무료함과 지루함을 없애고 싶음	불편한 상황의 해소	
피곤해도 잠이 안 올 때나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음	불면증을 없애고 싶음		

새로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됨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 음악치료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게 됨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함양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을 배움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간이 됨 자기표현을 하게 됨	정서 관리 방법을 습득함		
속을 시원하게 해줌 음악치료시간만큼은 걱정들로부터 자유롭고 즐거웠음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정화	음악치료의 경험	맥락적 조건
음악치료시간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	음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		
다함께 노래를 부를 때 보람을 느낌 여럿이 하는 활동에서 기분이 좋아짐 여럿이 음악을 공유할 수 있음	집단적 유대감을 경험함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보면 심리적으로 연 관이 되는 것 같음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음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태도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중심현상
가사에 공감되고 감정 이입됨 음악이 나를 적심	음악과의 동일시	음악치료에서 의 자기반영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괴리감이 줄 어듦	현실감을 찾기		중재적 조건
음악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더 느낄 것 같음 불안감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함	음악에 대한 기대감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	
혼자 있을 때 음악이 친구처럼 느껴짐 음악을 하면 혼자라고 느끼지 않음 음악을 연인처럼 느낌	음악을 친구처럼 여김		

음악활동을 자기회복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음 음악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유하고자 함	음악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함		
음악치료에서 배운 노래 중 좋은 노래를 모아 음악감상함 내 감정에 공감되는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함 스스로 스트레스나 기분조절을 하려고 음악을 감상함 시설에서보다 더 집중해서 명상하기 위해 집 에서 혼자 명상함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함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작용/상 호작용 전략
피아노를 배우게 됨 악기를 배우고 싶음	음악을 익히고 싶음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음악생활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싶음	음악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싶음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고 싶음 더 오랫동안 음악감상 시간을 누리고 싶음	음악을 즐기고 싶음		결과
자기 내면의 이슈들을 노랫말로 표현함 음악으로 명상하는 방법을 고안함 현재 감정을 키워드로 음악을 찾아 공감함 편안한 잠을 유도하기 위해 음악을 감상함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함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1) 긍정적 정서 고취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중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북돋우고 싶을 때 음악사용의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 고취’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긍정적인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 싶음’으로 나타났다.

① 긍정적인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 싶음

기쁠 때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더 즐거워짐

기쁠 때 음악들으면서, 빠른 노래 들으면 더 기쁘다고 할까요?
기분 좋을 때는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들으면 그게 좋아요. (참
여자 A)

기분 좋게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트로트같은 걸 부르면
기분이 더 좋아지죠. 일단은 엔돌핀이 많이 분출되니까. 분위
기 띄우는 데는 트로트가 최고죠. (참여자 H)

<표3> ‘긍정적 정서 고취’ 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긍정적인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 싶음	정도	약함-강함	긍정적 정서 고취

(2) 부정적 감정 전환

연구 참여자들은 걱정, 고민,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전환’ 의 하위범주로는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바꾸고 싶음’ 이 나타
났다.

①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바꾸고 싶음

걱정을 자주 느끼게 됨

기분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제 성격이 좀 참았다가 그게 폭발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는 클래식이 좋고, 가라앉히는데 좋아요. (참여자 G)

평상시에 걱정이 좀 많아요. 심리적으로 걱정스러운 면이 많고, 또 그게 지나가고 해결되면 아무렇지 않지만.. 다시 어떤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하게 되요. 이런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 더라고요.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죠. (참여자 C)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 같은 고민이 많아짐

제 상황 겸 감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 못하는 거...아버지 과일가게 점포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과일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서른 네다섯 먹은 애들이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 장사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네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어쩌다가 얘기하시면 저한테는 비수처럼, 스트레스 상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참여자 F)

가끔 불안감을 느낌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삶의 회의가 올 때도 있고 가끔 서글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복잡할 때도 있는 것 같고. 한번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랑 둘이서 노래방을 갔어요.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참여자 D)

<표4> ‘부정적인 감정 전환’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바꾸고 싶음	정도	약함-강함	부정적 감정 전환

(3) 스트레스상황 회피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으로서는 생기는 사회와의 이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상황 회피’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함’이 나타났다.

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함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낌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화가 잘 안될 때
 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대화를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 좀 풀려요. (참여자 A)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세상과의 이질감을 느낌

우리나라 현실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사회상이 정신질환
 자에 대해 약을 먹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질적인 느낌들을 느껴
 요. (참여자 F)

<표5> ‘스트레스상황 회피’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함	정도	약함-강함	스트레스상황 회피

(4) 불편한 상황의 해소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무료함과
 불면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악의 사용을 필
 요로 하였다. ‘불편한 상황의 해소’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무
 료함과 지루함을 없애고 싶음’, ‘불면증을 없애고 싶음’이 나타났
 다.

① 무료함과 지루함을 없애고 싶음

집에 들어가면 적막하고 무료함

집에 가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요. 아무 말도 안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그렇게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티비라도 틀어놔서 계속해서 소리가 흘러나오게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조용하고 심심해요. (참여자 A)

일할 때 지루함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말도 없어지고 조용하게 되는데 지루해지죠. 음악을 듣고 하면은 이게 더 일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리듬감도 타서 일을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참여자 A)

운전 일을 할 때 좀 지루해요. 그 때 음악 많이 들었죠. 일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클래식 이런 건 안 되고 빠른 템포의 재즈나 락 계열, 가요 같은 것도 마니 들었어요. (참여자 G)

책 읽을 때 지루함

소설책을 항상 읽는데, 좀 지루하니까 소설 볼 때 음악 틀어놔요. 3일에 6권정도 읽어요. 책 볼 때는 거의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참여자 G)

② 불편증을 없애고 싶음

피곤해도 잠이 안 올 때나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음

제가 학원 다니면 집에 도착하면 7시 반이거든요, 밥 먹으면 8시, 헬스장 갔다 오면 9시 반, 10시 막 이래요. 그럼 피곤해 지잖아요. 그런데도 밤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금방 잠들 것 같은데 누워있으면 또 잠이 안와요. 그래가지고, 음악 듣고 그래요. (참여자 E)

<표6> ‘불편한 상황의 해소’ 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무료함과 지루함을 없애고 싶음	정도	약함-강함	불편한 상황의 해소
불편증을 없애고 싶음			

(5) 음악치료의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재활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음악치료 경험을 하면서 지식적 습득과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성취감, 집단 체험을 통한 유대감 등을 경험하였다. ‘음악치료의 경험’ 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함양’, ‘정서 관리 방법을 습득함’, ‘음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 ‘집단적 유대감을 경험함’ 으로 나타났다.

①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함양

새로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됨

음악치료시간에 자유롭게 악기를 가지고 했던 활동이 기억
남아요. 주제 같은 거 없이 좋아하는 악기 골라서 막 연주하
는... 음악치료 때는 몰랐던 악기들이 많아서 그런 걸 연주할
때가 재밌고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B)

여러 가지 악기를 다뤄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던
게 좋았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나무로 또로로록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거요. 그 악기는 소리가 경쾌
해서 좋았고, 트라이앵글 비슷하게 생겨서 나팔모양으로 쇠로
된 악기 그건 약간 종소리 비슷해서 울리는 소리가 좋았어요.
(참여자 A)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

즉흥연주는 자유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음
악치료 할 때 굿바이 노래할 때는 시답지 않은 생각들이 줄어
들었어요. (참여자 F)

일단은 우울한 기분이 안들고, 그냥 기분전환이 되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접할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스트레
스도 해소되고. (참여자 A)

음악치료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게 됨

평상시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노래라든가,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으면, 아 그 때 배웠었지 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친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② 정서 관리 방법을 습득함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을 배움

일단은 음악이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차분히 하는 음악감상, 차분하게 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음악치료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치료가 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마음을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약간.. 마음이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참여자 C)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간이 됨

지금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음악치료시간이 없어졌는데, 음악시간이 없다보니까 자기만의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을 컨트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잠깐이나마 기분을 컨트롤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자기표현을 하게 됨

음악치료를 하고 나면은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음악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노래같은 걸 불러보고, 여러 가지 악기같은 것 소리내면서 즐기면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③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정화

속을 시원하게 해줌

음악치료 때 했던 활동 중에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한꺼번에 소리내서 녹음시켜서 다시 들어보는 거요. 여러 가지 악기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할까?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감정들을 해소해주는 느낌? 즉흥연주가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A)

음악치료시간만큼은 걱정들로부터 자유롭고 홀가분했음

상담할 때 수십 번 얘기했던 건데 날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치료시간에는 집중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그 시간만큼은 홀가분했어요. 음악치료시간에 말이죠, 어떤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 내 몸이

가벼워진다, 내 정신적 괴리감이 줄어드는 만큼 가벼워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치료시간을 매우 기다렸어요. (참여자 F)

④ 음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

음악치료시간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

서로 창작해와서,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생각나는 걸 덧씌우는 거요. 나름 생각하기에는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요. 선생님도 알다시피 제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 때 썼던 가사들 집에 있어요. 좀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치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게 생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완성됐을 때 ‘잘했다’는 느낌이었죠. (참여자 F)

⑤ 집단적 유대감을 경험함

다함께 노래를 부를 때 보람을 느낌

그 뭐지, 제목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노래 적어놓고 각자 이렇게 붙여서 그냥 한번 가사를 만들어보자 했잖아요. 그리고 다같이 부르잖아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은 속이... 어떤 사람들은 안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르는 사람은 좀 보람을 느껴요. 몸에서, 이제 노래를 다같이 하면은, 그래도

뭐가 소화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부르는 사람은 그것을 또 못 느껴요. 입 다물고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느껴요. (참여자 E)

여럿이 하는 활동에서 기분이 좋아짐

여럿이 하니깐,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혼자 하는 것 보다. 그리고, 여럿이 하는 악기 소리도 들어보고, 동시에 울리는 음 같은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여자 A)

회원들이랑 서로 합주했을 때, 그거하면서 가슴속에 있던 시름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감? 소리를 같이 내니까.. 거기서 발산되는 소리들이 자유로웠어요. (참여자 F)

여럿이 음악을 공유할 수 있음

다른 사람들과의 같은 악기 연주라든가 공연하면서 음악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런 음악들을 함으로써 내가 좀더 음악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서로가 연주라든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의미가 있을거예요. 음악치료하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부분들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예전의 노래들을 다시 들음으로써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자기 혼자하는

음악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 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거 같 고요. (참여자 C)

<표7> ‘음악치료의 경험’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함양			
정서 관리 방법을 습득함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정화	경험	적음-많음	음악치료의 경험
음악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			
집단적 유대감을 경험함			

(6)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재활 서비스로서 참여하게 된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음악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시간에서 느낀 감정들을 일상에서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심리적·감정적 상태를 음악과 연관시켜보는 노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음악으로 다루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①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태도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보면 심리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음

물론 그날의 기분을 선택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에 ‘오늘 한번 이 노래 들어보자’ 하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선택하는 이 곡에 대해서 나의 기분이 담겨있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의 그 곡이 그날에 맞는 거. 그 날의 성격과 그 날의 기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런이런 기분이니까 이런 곡을 들어야겠다 보다는, 그냥 아무 노래 선택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음

음악치료시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사실 다른 시간이나 평상시에는 음악시간처럼 기분을 내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음악시간을 기다리는건데. 평소에도 그런 시간을 스스로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자기 통찰이 됐든, 명상이 됐든, 음악시간이 아닌 때라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죠. (참여자 F)

<표8>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태도	유형	소극적-적극적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7)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

연구 참여자들이 음악치료에서 느꼈던 음악에 대한 자기반영 경험은 음악을 일상에서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전략 수행을 이끌어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치료의 음악적·환경적 요인들을 통해 음악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 감정 이입, 현실과의 괴리감 감소 등 자기반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음악과의 동일시’, ‘현실감을 찾기’가 나타났다.

① 음악과의 동일시

가사에 공감되고 감정 이입됨

음악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고 풀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해소

가 된다고 할까요, 특히 가사에서요. 노래 가사말이 좋으면 마음도 그 가사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노랫말 가사에 공감하고 싶죠. (참여자 A)

음악이 나를 적심

사람의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그 때 필요한 음악을 듣고 나면 삶의 활력이 되고 평정심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음악이 나를 적신다 생각했어요. 음악하고 동일시되는거요. (참여자 F)

② 현실감을 찾기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괴리감이 줄어 들

망상은 확실히 아닌데, 시답지 않은 생각들 있잖아요. 괴리감이란게 날 힘들게 하는 생각들, 예를 들면 아버지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다, 배다른 삼촌에 대한 증오심 같은 거예요. 음악 치료 할 때 굿바이 노래를 할 때는 괴리감이 줄어들고 있구나.. 제 마음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F)

<표9>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과의 동일시 현실감을 찾기	정도	약함-강함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

(8)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

연구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재적 조건의 또 하나는 음악사용에 대해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다.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 ‘음악을 친구처럼 여김’으로 나타났다.

① 음악에 대한 기대감

음악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더 느낄 것 같음

음악이 없으면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좀 스트레스 같은 것도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참여자 A)

② 음악을 친구처럼 여김

혼자 있을 때 음악이 친구처럼 느껴짐

저는 혼자 살면서 언제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음악과 같이하는. 음악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친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영원히 한 길을 같이 가는 친구. 그 정도로 저한테는 참 좋은 거죠. (참여자 B)

음악을 하면 혼자라고 느끼지 않음

음악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혼자 있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사람하고도 음악을 하면서 어울릴 수도 있고요. (참여자 B)

음악을 연인처럼 느낌

음악은 사랑하는 사람, 항상 갈 때 같이 걸어가는 존재 같아요. 저에게는 음악이 없으면 안되요. (참여자 B)

<표10>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에 대한 기대감	정도	약함-강함	음악을
음악을 친구처럼 여김			안전하게 느낌

(9)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치료에서의 경험을 일상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를 구체화 하는 전략으로 자기 주도적 음악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의 하위범주는 ‘음악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함’ ,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함’ 으로 나타났다.

① 음악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함

음악활동을 자기 회복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음

음악감상도.. 음악을 듣는다는 게 어떤 나의 척도를 알 수 있고, 뭐라 그래야할까, 음악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나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얼마큼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악과 그냥 흘러버렸던 음악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무의식중에 노래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그런 게 아, 내가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느낌을 갖고 노래를 듣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C)

음악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유하고자 함

제가 하루는 저 스스로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저 혼자도... 여기 센터에 다니면서 정신도 많이 나아졌고 헬스 하면서 몸도 많이 나아졌고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그 전에는 아버지, 형, 어머니... 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세상이 캄캄하고 누구도 생각 안나고, 저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갑자기 막 엄마, 형, 아빠한테 엄청나게 고마운 생각이 드는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노래는 옛날에 한번 들었다가,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 내용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사람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주위의 좋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관심 가져 주면 그것이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이 뭐라 하는거, 어머니가 뭐라하는거, 아버지가 뭐라하는거, 다 저 잘되라는 거 이제 와서 알겠어요. (참여자 E)

②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함

음악치료에서 배운 노래 중 좋은 노래를 모아 음악감상함

동아리가 있어서 음악감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제목을 세 개씩 추천해 오는거예요. 전에 음악치료 때 선생님이랑 했던 걸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같이 듣고요. (참여자 B)

내 감정에 공감되는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함

기분조절할 때는 클래식이 좋고 가라앉히거나 템포 빠르지않

고 느린거, 그리고 흥분되고 이럴 땐 락이나 팝이나 빠른템포로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할 것 없고 심심할 땐 가요 듣고. 그럼 기분이 육하던게 나아질 때고 있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질 때도 있어요. (참여자 G)

스스로 스트레스나 기분조절을 하려고 음악을 감상함

평소에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을 때 이제는 스스로 풀려고 해요. 음악 듣는 것도 스스로 풀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매번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참여자 E)

시설에서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 집에서 혼자 명상함

센터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음악치료시간에 명상 틀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집중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눈 감고 불 끄고 명상 느끼면은 그게 좀 되요. (참여자 E)

<표11>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활동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함	정도	적음-많음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함			

(10)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배움이라는 자기발전적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음악을 익히고 싶음’, ‘음악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싶음’이 나타났다.

① 음악을 익히고 싶음

피아노를 배우게 됨

시간을 어떻게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악 시간에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면 어떨까해서 배우게 되었죠. (참여자 B)

악기를 배우고 싶음

거문고를 좀 치고 싶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가 젊은 사람이 나와서 거문고를 치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배워보고싶어요. (참여자 B)

② 음악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싶음

음악생활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싶음

음악을 듣는 게 컴퓨터에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표12>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을 익히고 싶음	정도	약함-강함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음악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싶음			

(11)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주도적인 음악 사용의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음악의 소비를 기대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음악을 즐기고 싶음’,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함’ 으로 나타났다.

① 음악을 즐기고 싶음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고 싶음

오페라 같은 건 좀 다가오지가 않고 싶은데, 클래식, 재즈같은

거, 경음악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들어보고 싶고, 뭐랄까 CD같은 건 비싸니까 컴퓨터로 다운받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클래식이나 재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또 최신 노래도 신선하게 다가오니깐 또 괜찮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음악도 폭을 넓혀가려고 해요. (참여자 C)

더 오랫동안 음악감상 시간을 누리고 싶음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은 뭐 어떻게 사든지 조그마한 녹음기를 하나 사가지고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참여자 B)

②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함

자기 내면의 이슈들을 노랫말로 표현함

음악치료 때도 개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주로 작사를 하는 편이죠. 사랑의 영원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분노,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등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내면의 것들... 감정이에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좀 집이 탐탁지 않으면.. 토요일에 A4용지 한 10장 들고 가방에 넣어서 커피숍을 가요. 커피숍에 가서 한 6~7편 써가지고 오거든요. 내가 뭔가 속에 있는 것들을 뱉어냈구나,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한테 발설하고 싶은 내용들을 내뱉지는 못하니까, 최근에는 아버지랑 소통이 안되니까. 그걸

글로써 표현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뱉고 지른다는 느낌이에요. 정서를 순환시켜 준다고 해야하나. 무거운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바람을 조금씩 빼내는 듯한, 순환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참여자 F)

음악으로 명상하는 방법을 고안함

저는 명상음악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명상음악이 내려갈 때는 가슴을 내리고, 올라갈 때는 즐거운 생각을 해요. 음악이 잔잔하게 나올 때는 가슴을 좀 가라앉혔다가, 음악이 가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세상을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확 피거든요. 음악에 따라. 마음 속에서 슬픈 생각이 들면 가슴을 좀 가라앉혔다가, 옛날 생각 좀 하다가... 또 음악이 올라가면은 내가 슬픔에서 나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요. (참여자 E)

현재 감정을 키워드로 음악을 찾아 공감함

핸드폰에 보면, 힘들면 ‘힘들어요’ 치면, 힘든 것과 관련된 음악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 기쁘다 그러면 기쁜 노래를 한번 쳐보고요. 기뻐할 때는 기쁜 노래 들으면 더 기뻐지잖아요. 슬프거나 할 땐,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노래를 들으면 감정이.. 뭐라고 표현해야하지? 감정이 안정되요. (참여자 E)

편안한 잠을 유도하기 위해 음악을 감상함

잘 때 매번 듣는 노래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웬이나 와이투케이 노래를 들어요.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그냥 자면 잠들기가 좀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듣다가 그냥 자요. 원래는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음악 들면서 자고 그래요. 매일 같은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대신 하루에, 잘 때는 무조건 한 사람의 음악만 들어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음악으로요. (참여자 C)

원래는 음악 그런 걸 잘 안들었는데, 여기서 쉬면서 음악도 듣고, 명상도 듣고 하다보니, 집에서 잠 안오면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듣다가, 밖에 나가서 어떤 때는 가끔 12시쯤 잠이 안오면 밖에 나가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음악 듣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래요. (참여자 E)

<표13>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의 하위범주, 속성, 차원

하위범주	속성	차원	범주
음악을 즐기고 싶음	유형	소극적-적극적	적극적으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함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2) 축코딩 결과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각 범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6). 각 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과정 분석을 통해 작용/상호작용의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범주를 계속적으로 수정하면서 범주들의 연결과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축코딩의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관계로 통합하였다.

①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의 발생을 이끄는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정서적, 감정적, 상황적 상태의 심화 또는 변화 의지가 나타났을 때 음악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 정서 고취’, ‘부정적 감정 전환’, ‘스트레스상황 회피’, ‘불편한 상황의 해소’를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

로 활용하려고 함’이라는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 싶거나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바꾸고 싶음,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거나 무료함과 지루함을 없애고 싶고 불면증을 없애고 싶을 때 음악적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과적 조건으로서 ‘긍정적 정서 고취’, ‘부정적 감정 전환’, ‘스트레스상황 회피’, ‘불편한 상황의 해소’의 속성은 ‘정도’로, 차원은 ‘약함, 강함’으로 나타났다.

②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을 설명하면서 음악적 전략 활용을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음악치료의 경험’이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얻고, 정서 관리 방법을 습득하며 음악을 통한 만족감과 집단적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맥락적 조건으로서의 ‘음악치료의 경험’의 속성은 ‘경험’으로, ‘적음, 많음’에서 차이를 보였다.

③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

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6). 음악치료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일상의 음악적 전략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이 선택하는 음악이 자신의 심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끼고 음악치료에서 느낀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면서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한다. 중심현상으로서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의 속성은 ‘유형’으로 ‘소극적, 적극적’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④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이라는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음악과의 동일시, 현실감 찾기 등과 같은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과 음악에 대한 기대감, 음악을 친구처럼 여김 등과 같은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이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이끄는 데 맥락적 조건의 영향도 크지만, 중재적 조건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이 가지는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이 강하고 음악을 안전하게 느낄수록 음악치료 경험 내용의 활용 전략이 분명해진

다. 중재적 조건으로서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 과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 의 속성은 ‘정도’ 로, ‘약함, 강함’ 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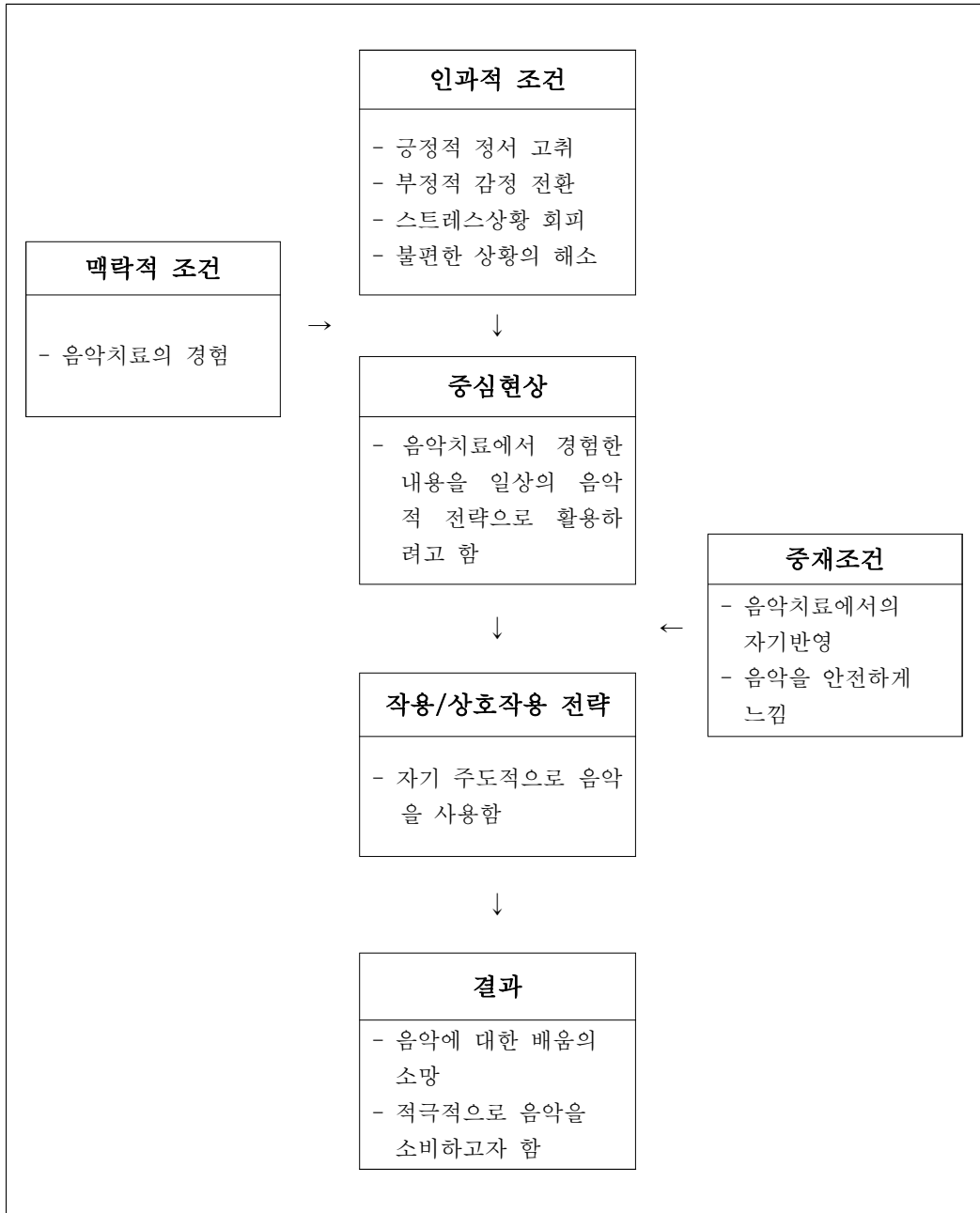
⑤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인다(Strauss & Corbin, 1996). 중심현상인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을 다루는 행위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를 주목하여 분석하였을 때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음악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함과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함 등과 같은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의 속성은 ‘유형’ 으로 ‘소극적, 적극적’ 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⑥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을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최종적인 성과이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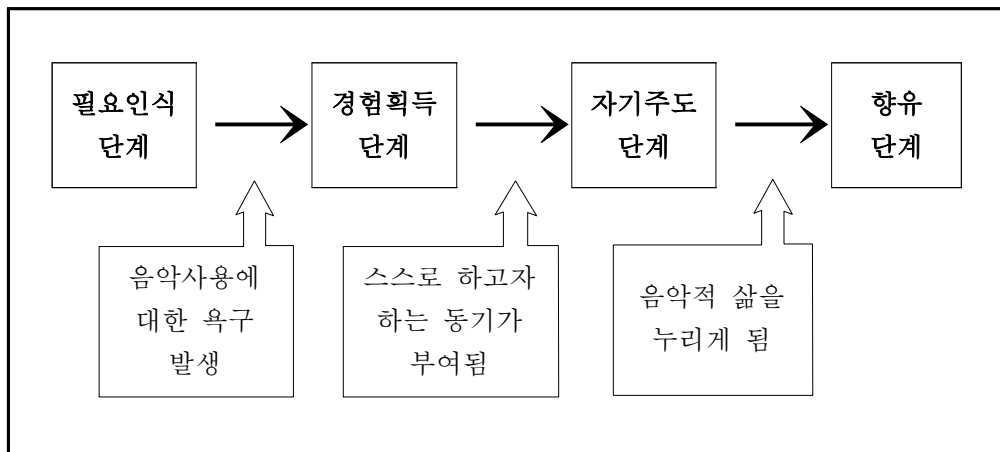
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음악과 관련하여 악기나 컴퓨터 활용 등 진취적인 형태로의 배움을 소망했고, 음악을 즐기하고자 했으며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음악 소비를 하게 되었다. 결과로서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의 속성은 ‘정도’로, ‘소극적, 적극적’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그림1>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페러다임 모형

(2) 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Strauss & Corbin, 1996)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의 음악치료 경험 활용과정은 필요인식 단계, 경험획득 단계, 자기주도 단계, 향유 단계의 네 가지 과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는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의 전략적 사용 과정

① 필요인식 단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음악생활을 향유해 나가는 첫 시작은 삶에서 음악적 필요를 인식할 때이다. 참여자들은 음악적 필요와 음악적 경험이 맞물려 이해되었을 때 그 내용을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그 과정에 대한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모두에서 음악적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기분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할 때 음악사용의 필요를 느꼈다.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을 북돋우고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좋지 않은 기분을 전환시키고자 할 때 음악사용의 필요를 느꼈다.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재활을 하는 이용자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위의 기대와 시선에 의해 종종 고민, 걱정,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자 할 때 음악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질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상황을 멀리하기 위해 음악을 필요로 하였다. 때로는 일상생활이 무료하고 지루할 때도 있고, 불면증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는데, 이때에도 음악사용의 필요를 인식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음악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② 경험획득 단계

경험획득 단계는 참여자들이 음악사용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과 맞물려 주요한 정신재활 서비스로서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치료적 음악을 경험하고 습득해가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음악사용의 필요를 느꼈지만 음악지식이나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음악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에서 새로운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음악치료에서 다루는 생소한 악기나 사용하는 노래 등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음악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마음을 차분하게 하거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등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를 통해서 음악이 주는 시원함과 자유로움, 성취감 등을 경험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음악치료 시간만큼은 평소에 있던 고민과 걱정들로부터 훌가분한 기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다함께 노래를 부르고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음악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경험획득 단계를 통해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과 자신, 자신과 환경이 주고받는 영향을 경험하고, 스스로 음악을 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③ 자기주도 단계

자기주도 단계는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경험 이후, 스스로 음악을 사용해보고자 시도하며 치료적 음악경험에서 벗어나 그 경험과 관련된 자기만의 음악경험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를 경험하면서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음악치료시간처럼,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 감상해보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과 연관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일상에서도 다시 느끼고 싶어졌다. 참여자들이 이렇게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을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에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 외로움을 느꼈는데, 음악은 외로움을 잊게 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스스로 스트레스나 기분조절을 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음악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회복경험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음악활동을 자신의 회복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부정적인 생각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어가는 것을 느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과 음악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삶 속에서 음악을 누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④ 향유 단계

향유 단계는 음악치료를 경험하게 된 참여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음

악을 사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끝에,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음악적 삶을 향유해 나가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이 필요인식 단계, 경험획득 단계, 자기주도 단계를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에 대한 배움과 음악을 소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음악생활을 구현하게 된다. 즉, 참여자들은 삶에서 음악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된다. 삶에서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참여자들은 음악을 익히고 싶어 하고, 음악활동을 위해 배우고 싶어 하며, 음악을 즐기고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의식과 기대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3) 선택코딩 결과

선택코딩은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된 중심현상으로서의 핵심범주를 밝히고, 정교화 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6). 이 과정에서는 모든 개념과 범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분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함된다.

(1) 핵심범주

핵심범주는 이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주요단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택코딩을 통해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 라 명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음악치료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일상에서 음악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그 과정을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 라는 핵심범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삶을 살면서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는 시기를 인식하게 되고, 정신재활 서비스로서 음악치료를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들과 함께 음악적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음악과 동일시되고 음악을 친구처럼 여기게 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참여자들은 음악을 통해 회복경험을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가지고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즉,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음악에 대해 배우고 소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음악을 향유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경험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과정은 필요인식, 경험획득, 자기주도를 거쳐 향유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 필요인식 단계는 경험획득 단계를 뒷받침하고, 자기주도 단계는 향유 단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크게는 경험획득 단계로부터 향유 단계로 연결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요소는 첫째, 음악적 필요인식에 힘입어 제시되는 ‘음악치료 경험’ 이고 둘째, 경험된 내용을 동기로 자기 주도적인 음악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음악생활의 향유’ 인 것이다. 즉,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참여 후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음악의 전략적 사용과정은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 라는 범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음악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변화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것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어 범주를 정교화해서 이야기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라고 명명하였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다음은 6개월 이상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서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 함’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은 평소 정서를 고양시키거나 감정을 전환시키기 위해, 스트레스상황을 회피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할 때 음악을 찾게 된다. 기쁠 때 빠른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고취시키고, 불면증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낄 때 숙면을 취하기 위해 음악을 듣기도 한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고민이나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로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지만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재활 서비스의 하나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새로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게 된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하는 방법이나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도 습득하게 된다. 음악치료 활동을 하면서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음악치료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참여자들은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경험내용을 일상에서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참여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음악치료에서 음악과 동일시되는 경험과 현실감을 찾게 해주었던 자기반영의 경험, 음악이 친구처럼 여겨지는 안전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본인 스스로 회복경험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고 노력하며 자신만의 음악생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증가시켜갔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과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하는 삶의 변화를 결과로 가져왔다. 취미로 악기를 배운다거나 더 나은 음악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등 배움에 대한 소망이 지속되었고, 더 다양하게 더 오랫동안 음악을 즐기고 싶은 욕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음악치료에서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내면의 이슈를 주제로 작사하고, 음악으로 명상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현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검색해 나온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며,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등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음악사용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들은 음악적 필요를 가지고 음악치료를 경험하게 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음악을 주도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음악을 향유해 나가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음악치료 경험과 그와 연관된 일상의 음악적 삶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의 절차에 따라 음악치료경험과 일상의 음악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미리 준비된 반구조적 질문지에 따라 진행된 심층면접은 모두 녹음된 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다. 이 녹취자료를 기반으로 Strauss와 Corbin(2001)이 활용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을 통해 총 47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과정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6)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각 범주들의 연결과 관계 분석을 통해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일상에서의 음악활용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긍정적 정서 고취’, ‘부정적 감정 전환’, ‘스트레스상황 회피’, ‘불편한 상황의 해소’ 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음악치료의 경험’ 이었다. 중심현상은 ‘음악치료에서 경험한 내용을 일상

의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함' 이었고, 이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음악치료에서의 자기반영' 과 '음악을 안전하게 느낌' 이 나타났다. 중심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함' 이었고, 결과는 '음악에 대한 배움의 소망' , '적극적으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함' 이 었다. 또한 과정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필요인식 단계, 경험 획득 단계, 자기주도 단계, 향유 단계의 네 가지 과정으로 일상에서 전략 적 음악 활용의 과정을 나타냄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요인식 단계는 사 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음악 생활을 향유해 나가는 첫 시작으로, 삶에서 음악적 필요를 인식하는 단 계이다. 참여자들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모두에서 음악사용의 필요를 느꼈다. 둘째, 경험획득 단계는 참여자들이 음악사용 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과 맞물려 주요한 정신재활 서비스로서 음악치료프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치료적 음악을 경험하고 습득해가는 단계이다. 음악지식이나 기술적으로 음악사용의 한계가 있었던 참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음악치료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음악적 지식이나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새로운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한 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음악활동이 주는 성취감과 유대감을 경험하였 다. 이 단계를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음악을 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 여받게 된다. 셋째, 자기주도 단계는 스스로 음악을 사용해보고자 시도하 며 치료적 음악경험에서 벗어나 그 경험과 관련된 자기만의 음악경험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단계이다. 음악치료를 경험하면서 음악으로 자 신의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지니게 된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 던 감정들을 일상에서도 다시 느끼고 싶어졌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기 분조절을 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거나 혼자 명상을 하는 등 목적에

따라 스스로 음악을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음악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과 음악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넷째, 향유 단계에서는 자기주도 단계 이후,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음악적 삶을 향유해 나가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음악에 대한 배움과 음악을 소비하고자 하는 열정이 드러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음악생활을 구현하게 된다.

선택코딩에서는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라고 핵심범주를 명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귀시설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서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일상에서 음악을 즐기고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발전적 음악생활을 누리며 사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개인에게 미치는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음악치료 경험이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연구과정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삶의 변화 측면을 질적 연구로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치료 경험이 개인의 일상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략적 음악사용 단계를 도출하여 관련 분야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치료 현장의 서비스 개입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Strauss와 Corbin(1996)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적 음악생활 향유해 나가기’ 라는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음악치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스스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치료에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참여자들은 음악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음악치료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자 그 경험내용을 일상에서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경험이 자기인식(self-awareness)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조절감(self-regulation)을 촉진시킨다는 Tillman(2000)의 주장에 부합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경험내용을 일상에서 음악적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노력과 시도는 참여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음악치료에서 가졌던 자기반영의 경험, 음악이 친구처럼 여겨지는 안전감을 기반으로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본인 스스로의 회복경험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음악에서 표현되는 인간 행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본인의 태도와 성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정현주(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주목해 볼 결과로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의 음악사용에 주도적인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배움의 소망과 적극적인 음악 소비 등 자기발전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Tillman(2000)이 주장한 것과 같이, 음악을 사용하는 경험이 발달할수록 자신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 자기발달(self-development)을 촉진시킨다는 내용과 연관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음악 자체를 익히고 싶어 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음악사용을 위한 도구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등의 결과는 음악적 능력의 발달이 개인의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까지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는 Tillman(200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적으로 이끌어주는 음악적 삶을 누리며 향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만족, 스스로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긴다는 박화일(2009)의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지역 정신재활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이 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생활음악(민경훈, 2001)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음악치료를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일상에서 음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령, 병력 기간, 음악치료 참여기간 등이 상이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선호, 활용방식, 경험에 대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적 환경에 따라 일상의 음악활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참여자 표집을 통해 이론적 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경험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치료자 겸 시설의 실무자가 연구자로서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면접 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지만,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실무자와의 관계와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연구 반응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 (200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단음악치료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명진 (2008). 음악치료가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뇌파, 자율신경계, 인지, 행동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은진 (2011). 음악치료사의 자기 돌봄을 위한 음악 활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노은선, 권선숙, 김경희, 염순교, 송미승 외 (2003). 입원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2(2), 172-181.
- 김계원, 정광조,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만성정신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43-57.
- 김귀분, 신경림, 김소선, 김남조, 박은숙, 김혜숙 외 (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기수 (2009). 일상과 음악과의 연속성 매개로서의 미적 경험. **음악교육**, 10, 39-61.
- 김문근 (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분담과 연계방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3-88.
- 김수지, 고혜정, 권혜경 (2002). **음악치료학 개론 : 이론과 실제**. 서울: 권혜경음악치료센터.
- 김수현 (2004). 클래식을 차용한 생활음악의 음악수업 활용방안연구 :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영 (2004). 통합정신재활서비스와 재활성과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남 (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혜선 (2012). **활동중심의 그룹음악치료가 사회복지시설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장신대학교 전인치유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춘희 (2000).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회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1(1), 5-18.
- 도복늬, 이길자, 오경옥, 김후자, 김문영, 손영주 외 (1996). **최신정신간호학 개정판(하)**. 서울: 정담.
- 도복늬, 김후자, 안황란, 김문영, 오경옥, 손영주 외 (2001). **정신간호학 각론**. 서울: 정담.
- 문인숙, 양옥경 (1991).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서울: 일신사.
- 문지영 (2009). 정신과 환자들의 음악치료 인식도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142-159.
- 문지영 (2012). 음악치료 및 다른 심리 교육적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일 병원 정신과 입원 환자들의 인식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3), 31-53.
- 민경훈 (2001).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 독일을 본보기로. **음악교육연구**, 20(1), 21-52.
- 박상규 (2006). **정신재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주홍 (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장기근속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69-104.
- 박지은 (2009). 장애 아동의 그룹 음악치료의 지속적인 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66-85.
- 박지희 (2003). **정신분열증 성인대상의 음악장르에 관한 선호도연구**. 이화

-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일 (2009). **생활음악 활성화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합창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현 (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미적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0). **2010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1). **2010 보건복지백서.** 서울: 문영사.
- 보건복지부 (2011).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보건복지부 (2012). **2011 보건복지백서.** 서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보건복지부 (2012). **2012 정신보건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보건사회연구원 (200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새미래정신재활연구소 (1999). **정신재활프로그램 이론 안내서.** 서울: 정신재활.
-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옥경 (1993).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서울: 한울출판사.
- 양은아 (2006). **중증 장애 아동의 의미 있는 음악치료 경험.** **한국음악치료 학회지**, 8(2), 45-61.
- 유소연 (2009). **요가중심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만성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기술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1999). 집단음악활동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감정 표현력과 정신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2009).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음악 만들기 경험’의 의미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103-123.
- 이드보라, 정영인 (2008). 음악치료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인식 조사 : 질적연구. 부산대병원학술지, (24), 105-115.
- 이미경 (2011). 집단음악치료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병 침습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나 (2011).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수준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운 (1990). 정신의학사전. 서울: 일조각.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1), 105-125.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최미경 (2007). 타이치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체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철 (2007). 음악치료학(2판). 서울: 학지사.
-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1994).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인간과 복지.
- 한영란 (1998).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희주 (1991). 음악사회학의 이해. 음악과 민족, 2, 29-41.

- 홍혜영, 정광조, 최애나 (2011). 음악치료활동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7(2), 105-122.
- Amir, D. (1992). *Awakening and expanding the self: Meaningful moments on the music therapy process as experienced and describes by music therapists and music therapy clients*. Doctori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Bruno, F. J. (1989). *The Family mental health encyclopedia*.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ruscia, K. E. (1998). *음악치료(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 (2003). 서울: 학지사.
- Cambell, R. J. (1989). *Psychiatric Dictionary (6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itz, W. C., & Swanson, J. M.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CA: Addison Wesley.
- Creswell, J. W. (199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05). 서울: 학지사.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Goodman, K. D. (1981). Music Therapy.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7, 575.
- Kenny, C. B. (1987). *The field of play: A theoretical study of music therapy process*. Doctorial Dissertation. CA: The Fielding Institute.

- Lieberman, R. P. (1995). **만성정신과 환자를 위한 정신재활**(*Psychiatric Rehabilitation of chronic Mental Patient*). 김철권, 변원탄 공역 (2000). 서울: 신한.
-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6). **근거이론의 이해**(*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지, 신경림 공역(2008). 서울: 한울아카데미.
- Strauss, A., & Corbin, J.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Thaut, M. H. (1989).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self-rated changes in relaxation, affect, and thought in psychiatric prisoner-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6(3), 155-166.
- Tillman, J. B. (2000). *Constructing Musical Healing : The Wounds that Heal*.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Unkefer, R. F. (1990).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ult with mental disorders*. New York: Schirmer Books.
- Wheeler, B. (1983). A psychotherapeutic classification of music therapy practices: A continuum of procedur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2), 8-12.

ABSTRACT

A Study of Grounded theory in the Strategic Use of Music in the Daily Lives of Social Rehabilitation Center Users' Experiences with Music Therapy

So Ri Le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ategic use of music in the daily lives of social rehabilitation center users' experiences with music therapy.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eight users of H Social Rehabilitation Center who had experienced music therapy for over six months. They were selected by purposeful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were analyzed using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by using grounded theory methods. Data were categorized into 47 concepts, 21 sub-categories, and 11 upper-categorie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ategorie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showed causal conditions, contextual conditions, central phenomena, intervening condition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nd consequences. The entire process was divided into four phases : "awareness of needs", "acquisition of experience", "self-directing", and "enjoyment". The core category in the process of the strategic use of music in the daily lives of the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users was revealed as being, "enjoy the self-developmental musical life based on the experience of music therapy".

The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users were aware of their social and emotional issue, and they showe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initiate the use of music with experience in music therapy as a 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 As a result, they could enjoy self-developmental music by strategically using the music in their daily l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music therapy from users' viewpoi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unlike earlier studies focusing on quantitative changes, it identifies the life-changing experiences of music therapy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부록>

연구에 대한 참여동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음악을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 분석 후 질적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로 요청받으셨으며 강제성 없이 귀하의 판단에 의해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하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 30분~1시간가량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평소 귀하 자신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장치로 녹음될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모두 폐기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오직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모두 기호화하여 표기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귀하는 연구자의 질문에 편안하다고 느낄 만큼만 답변해주시면 되고, 특정 질문에는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면담 도중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하여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 시, 면담 필사 결과를 확인하고 내용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의 음악활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질의 재활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활동과 이와 관련된 음악치료 분야 전문가, 전공생들에게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참여자 : _____ (인)

연구자 : _____(인)